"미래산업 육성·희망복지 실현…군민행복시대 열겠다"

재선 성공 전동평 영암군수 민선 7기 구상

일자리 창출·영암읍 상권 살리기로 지역경제 새 활력 불어넣기
4대 전략산업 추진…대불산단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
종자산업 키워 최첨단 농업 선도·남도문화관광 중심지 육성

"더 나은 영암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해 군민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1991년 전국 최연소 전남도의원에 당선돼 내리 4선을 역임하고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전동평(57) 영암군수는 "민선 7기 4년은 군민행복시대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군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한 전 군수는 '군민 대통합, 군민행복시대 완성'과 '일등영암'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포부로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년간 군정 전반에 혁신을 이뤄낸 것은 군민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는 전 군수는 5대 군정 지표로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 ▲고품질·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신성장 동력의 미래산업 선도 ▲전통과 미래의 문화관광 창출 ▲군민과 소통하는 일등영암 건설을 내걸었다.

전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영암읍이 영암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선7기를 시작으로 침체된 영암읍 상권 살리기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미래 생명산업인 종자산업을 육성해 최첨단 농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영암은 전국에서 11번째, 도내에서는 2번째로 넓은 경지면적이 있고 국립종자원의 벼 정선시설이 조성되면서 국내 최고의 종묘회사가 들어섰다. 이처럼 우수한 종자들을 기반으로 읍·면별 토양과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우수 농산물 특화작목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그 동안 영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한 '4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경비행기·드론 항공 산업, 자동차튜닝 산업 등으로 미래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조선업 중심의 대불산단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동차 튜닝기술자도 양성할 방침이다.

전 군수는 "월출산을 비롯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대 마한시대의 유적부터 최첨단 기술의 각축장인 F1국제자동차경주장, 대불국가산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영암의 잠재력은 크다"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가 돌아오고 여성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그동안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영암랜드마크인 월출산 기찬랜드에 조성한 트로트박물관에 이어 트로트창작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하정웅 미술관에 창작교육관을 건립해 남도문화관광 중심 영암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찰 도갑사와 왕인박사 유적지, 기찬랜드와 도기박물관 등이 산재한 남도문화관광 중심"이라며 "축복과 희망의 땅 영암에서 우리 모두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영암의 미래를 위한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직접 선두에 서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성과를 거두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민선 7기는 인사부터 예산, 회계에 이르기까지 군정 전반을 더욱 혁신하고 쇄신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영암=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

민선 7기 5대 군정 지표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
▲고품질·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신성장 동력의 미래산업 선도
▲전통과 미래의 문화관광 창출
▲군민과 소통하는 일등영암 건설

영암군 살림살이 사상 첫 5000억원 돌파

고용위기지역 국·도비 반영
올해 예산 5130억원 편성

영암군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496억원 늘리면서 올해 살림살이 규모는 5130억원이 편성됐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역대 최대인 5130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지난 13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4634억원보다 496억원(10.7%)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대비 442억원(10.6%) 증가한 460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8억원(10.3.%) 늘어난 82억원이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38억원으로 46억원(11.7%)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희망근로지원 사업, 영암지역 실업극복·고용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대불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등 고용위기지역 선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가 대거 편성됐다.

또 계속되는 폭염특보 등 무더위로 인한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시설 및 장비지원, 그늘막 설치비 등이 긴급 반영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선정에 따른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편성했다"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의 예산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세얼굴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세심한 치안활동"

박인배 영암경찰서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세심한 치안활동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인배 신임 영암경찰서장은 14일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치안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서장은 직원들에게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얻는 안전한 영암을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영암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영암출신인박 신임 서장은 서울 김포공항 경찰대장, 전남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영암=문병선 기자 moon@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이달말 계도기간 종료

영암군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함에 따라 "대상 업소는 꼭 가입해 달라"고 독려했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 관광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만약 해당업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여관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본 업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구제받았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토멘티 놀이문화체험 운영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기찬랜드 일대에서 1대1 멘토 멘티 놀이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8명이 멘토와 멘티로 참가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1388청소년 또래멘토 지원단'이 멘토가 나서 멘티인 초등학생들과 함께 보물찾기, 물총놀이 및 물놀이, 화채 만들기 등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군 제공〉